



한국경제

SAMSUNG
Galaxy Note20 | 20 Ultra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hankyung.com

제17910호 | 대표전화 02) 360-4114

Market Index (28일)		1판
코스피지수	2345.26	+14.42
코스닥지수	806.20	+22.47
국고채금리 (3년물, 연%)	0.914	-0.003
환율 (원·달러)	1130.60	+5.10
일본 닛케이	23,418.51(-67.29)	
WTI(유가)	39.57달러(+1.01)	

KB증권 PRIME CLUB

“ESG가 대세 ... 저탄소 녹색투자 늘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투자 패러다임을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한 논의가 의무사항이나 구색 맞추기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투자자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투자 기회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기후 변화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리스크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자본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A4, 5면

한국경제신문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 'ASK 2020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세계 투자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이 커지자 ESG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예전보다 훨씬 더 비중있게 보

ASK 2020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코로나로 패러다임 급변 ... 지속가능 경제 중요 글로벌 '큰손' 80% “ESG 고려하면 수익 높아”

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사로 나선 크리스 레슬리 맥쿼리 지속성부문 글로벌대표는 “글로벌 큰손 150명(총자산 20조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0%가 ESG를 고려 요인으로 삼으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영국 국제무역부(DIT) 소속 녹색금융 전문 기업 앨런 위키는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투자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SG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분위

기도 한층 강해졌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세계는 행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세계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규모는 90조달러(약 10경1700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부 역시 늦어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와 탄소 저장장치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탄소 경제와 이를 지원 하는 녹색금융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에너지산업도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정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인프라 수요도 증가 일로다. 브랜드 버넷 해밀턴레인 전무는 “전체인프라 투자 포트폴리오의 25~30%를 재생에너지 투자에 배정하는 기관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물리적 관계가 단절된 이후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레슬리 대표는 “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설계와 재구축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전과 기회가 혼재하는 전례 없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전예진/이성은 기자 ace@hankyung.com

文 “2050년 탄소 중립”

예산안 시정연설 ... ‘탄소 제로’ 시한 첫 제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8일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2050, 중국의 2060 탄소 중립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3개국 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 발전 퇴출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올해 예산안도 확장재정을 위한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556兆 예산으로 위기극복” 일각선 “脫석탄 과속 우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8조원을 그린뉴딜에 편성해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최우선을 뒀다”며 구체적 투자 규모와 용처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세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격돌 중인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불안정한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범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쁘고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건희 ‘반도체 신화의 땅’에 영원히 잠들다

(삼성전자 본사·선영 있는 수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운구차량이 28일 경기 화성시임장 임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장지인 수원 선영으로 향하고 있다. 협력사 직원, 인근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화성시임장에 모여 ‘거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운구행렬 화성공장 등 둘러 임직원들과 마지막 작별인사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이끌며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이건희 삼성 회장이 28일 영면에 들었다. ‘반도체 신화’의 전진기지로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의 선영에 묻혔다.

▶관련기사 A6면

이 회장 영결식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비공개로

열렸다. 영결식에는 고인의 동생인 이병희 신세계 회장,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도 경영계를 대표해 영결식에 참석했다.

발인은 오전 8시50분께 시작됐다. 운구행렬은 서울 한남동 자택과 송지원, 리움 미술관을 거쳐 이 회장이 애착을 보인 경기 화성 반도체사업장에 도착해 임직원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 이곳은 2010년 5월 생전 마지막으로 기공식을 한 삼성전자 반도체 16라인이 있는 곳이다. 장례는

오전 11시55분께 수원 선영에서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회장은 지난 25일 오전 4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5개월 만이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병삼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이 회장의 역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지도자로 그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식/이수빈 기자 click@hankyung.com

‘상속세 11兆’ 삼성家 ... 英기업이었다면 3.6조원

기업 승계하면 상속공제 적용 스페인에선 3000억으로 줄어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한국 정부에 내야 하는 상속세가 11조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삼성이 영국에 있다면 3분의 1 수준인 3조6000억원가량만 영국 정부에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선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돼 각각 3000억원, 6000억원대 상속세만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시리즈 A10면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본사가 영국에 있다면 이 회장 상속주식(약 18조2200억원)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하는 세금 은 3조6439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속재산에서 비교세 기준액(약 4억8000만원)을 뺀 뒤 상속공제를 고려한 상속세율(20%)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

영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40%지만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 상속공제를 해줘 상속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상속세 최고 세율(50%)에 대

주주 할증(20%)이 붙어 60%의 세율로 11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독일에 삼성 본사가 있다면 상속세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5조4659억원으로 떨어진다. 독일도 직계비속에 상속할 때 명목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상속 후에도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TUDOR

#BORN TODAY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력은 무엇일까요? 대답하게 도전하고, 마지막 세계를 개척하는 정신이 그 원동력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TUDOR의 탄생으로 이어진 정신이자 TUDOR 사계를 착용하는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도전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없다면 역사도 진성도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 베컴이 최후까지 도전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TUDOR 사계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누군가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만, 누군가는 대담하게 도전합니다.

BLACK BAY FIFTY-EIGHT